

“서울시 생계사업자, 정부지원금 등 정책 영향 크게 받아”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들의 경제적 위험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대출 행태에 반영됐다.

정부의 정책 금융으로 생계사업자들이 우선순위가 높은 대출로 옮겨가면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었고, 다중채무는 증가한 뒤 유지됐다. 고액카드대출은 감소했다가 다시 늘었고, 2금융 신용대출이나 카드연체는 줄어드는 패턴이 관찰됐다.

16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주재욱·윤종진 시민경제실 연구원은 최근 공개된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 현황과 경제적 위험요인 진단’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보고서는 법적 진입장벽, 사업 규모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생계형 사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소매업, 음식·주점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5개 업종을 ‘생계형 개인사업자’(생계사업자)로 정의했다.

먼저 연구진은 기존에 사용했던 지표(폐업, 파산, 취업자수, 생산자수 등)들은 생계사업자의 경제적 위험을 파악하기에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

생계 사업자 경제적 위험요인 진단

사업자 대출 코로나 초기 급증 같은 해 10월 다시 소폭 상승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등 정부정책 영향

연구진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상권 DB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생계사업자의 폐업 수는 감소했다. 감염병 사태 전인 2018~2019년에는 평균 약 4811개가 문을 닫았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5월에는 폐업 수가 2860개로 오히려 준 것이다.

보고서는 폐업하는 사업자보다 폐업하지 않는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생계사업자의 폐업이 감소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자금, 권리금 회수와 대출 유예의 어려움 등이 꼽

힌다”며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폐업에 필요한 요건과 기타 제도적 특성으로 폐업 수가 생계사업자의 위험을 직접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이에 연구진은 생계사업자의 경제적 위험 요소를 보다 정확히 측정·분석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빅데이터 CreDB를 활용, 발전된 위험지표를 새롭게 만들었다.

연구진은 ▲개인 신용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대출 금액이 전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차주의 비중이

‘A유형’ ▲사업자 대출·지급보증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대출금액이 전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차주의 비중인 ‘B유형’ ▲대출이 있는 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다중채무자 차주의 비중인 ‘C유형’ ▲4개월 전 개인카드 대출이 없었지만 현재 개인카드 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차주의 비중인 ‘D유형’ ▲개인 2금융 신용대출금액이 2개월 이동 평균보다 큰 차주의 비중인 ‘E유형’ ▲개인 카드 연체등록금액이 있는 차주의 비중인 ‘F유형’ 총 6개 위험지표를 개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개인 신용대출 증가를 나타내는 A유형 지표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점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정책 금융 시점에 따라 진정되는 것이 관측됐다.

사업자 대출 증가를 뜻하는 B유형 지표는 2020년 4월 급증했다가 감소하고, 같은해 10월 다시 소폭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특례보증 시행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다중채무를 의미하는 C유형 지표는 이전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20년 4월 증가한 후 다시 줄지 않고 비슷한 수

준을 유지했다. 정책금융에 따른 누적적 결과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구진은 “카드대출 증가를 나타내는 D유형 지표가 1·2차 금융지원 시 급감한 것은 저금리로 정책금융을 지원받아 카드 대출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뜻한다”며 “그러나 금융지원이 끝나고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정책자금이 소진되면서 다시 위험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금융 신용대출 증가를 의미하는 E유형 지표는 코로나19 이후 2020년 6월까지 꾸준히 줄어든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같은해 11월에 다시 감소했다. 대출 우선순위가 낮은 2금융권 특성상 정책 지원이 있으면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개인카드 연체를 뜻하는 F유형 지표는 코로나19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자상환유예로 나타나는 연체 감소는 그야말로 정부 정책 때문에 연체를 뒤로 미룬 것일 뿐이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상환유예기간이 끝난 뒤의 지표를 살펴봐야 한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경기도 법인 세무조사, ‘최우수’ 3곳 선정

수원시·의정부시·여주시 선정 추진실적·직무환경 개선 등 평가

경기도는 ‘2022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에 수원시, 의정부시, 여주시를 각각 선정했다.

도는 인구·세수 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세무조사 추진실적 ▲세무조사 직무환경 개선 노력 등 2개 분야 9개 세부 지표 평가를 진행했다.

세무조사 추진실적 분야에서는 ▲최근 4년간 평균 법인분 부과액 대비 세무조사 추정률 ▲전년 대비 추정액 증가율 ▲조사 대상 법인 수 대비 조사 수행 비율 ▲정기 세무조사 수행 건수 ▲도 지원 세무조사 건수 ▲조사 대상 법인

수 대비 조사인력 비율 등 6개 지표로 평가했다.

세무조사 직무환경 개선 노력 분야(가감점 항목)에서는 ▲인력보강·감소 ▲새로운 조사기법·특수시책 사례 ▲연찬회 및 발표대회 수상 등 3개 지표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인구 및 세수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수원시, 우수상 용인시, 장려상 평택시가 각각 선정됐다.

수원시는 1그룹에서 최근 4년간 평균 법인분 부과액 대비 세무조사 추정률과 전년 대비 추정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인구·세수 규모가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의정부시, 우수상 시흥시, 장려상은 안성

시가 각각 뽑혔다.

의정부시는 2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지원 세무조사가 6건으로 채택 비중이 높았으며, 가설건축물 축조·연장 신고 시 취득세 등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지방세 신고 누락이 빈번한 건설 현장에 있는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여주시가 최우수상, 양평군이 우수상, 가평군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여주시는 과점주조사에 따른 취득세 추정으로 전년 대비 추정액이 16배 이상 증가해 3그룹뿐 아니라 전체 그룹에서 전년 대비 추정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세종대 산업대학원 2022학년도 후기 2차 모집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은 2022학년도 후기 2차 신입생을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과정은 온라인 강의로 정규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이번 2차 신입생은 부동산자산관리

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유통산업학과, 스포츠산업학과(스포츠산업전공/스포츠헬스케어전공/태권도전공) 등 4개 학과로 석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 내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

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며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한다.

이번 2022학년도 후기 2차 신입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대 산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서울시 공사장 등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

서울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의 연속성을 위한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취약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공사장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화재와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 한 훈련도 시행한다. 자치구 통합지원본부와 소방서 긴급구조 통제단이 함께 사고를 수습하는 훈련으로, 재난 대응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훈련은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



화재 발생을 가정한 재난상황 훈련 모습./서울시

화센터’에서 내달 8일까지 13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17일 (화) 음력: 4월 17일

수도권 날씨 14~2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05:22 | 해질 19:36

지역별 날씨: 연천 12/26, 동두천 12/27, 가평 10/26, 파주 11/25, 서울 14/26, 양평 11/26, 인천 14/22, 수원 14/25, 용인 14/25, 평택 10/27, 백령도 11/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4월 일본 기업물가 10.0% ↑... “에너지 급등에 41년 만에 역대급”
▲ 바이든 “인종혐오 범죄 끝내야”... 참사 현장 방문 /사진 뉴시스

▲ “나토, 스웨덴·핀란드에 가입전에도 임시 안보 보장 제공 가능”
▲ 중국 상하이, 점진적 재개방... 봉쇄 50일만



▲ 中 4월 산업생산 2.9% ↓... “제로 코로나에 물류혼란·가동중단”
▲ 우크라이나 인도 ‘밀 수출’ 중단... 라면·빵 등 식품물가 ‘비상’ /사진 뉴시스